

# 아라한 된 가섭부인이 90일간 임금수청 든 '업'

## 불전속 신이한 이야기 (18)

가섭부부의 출가이야기

훗날 가섭의 아버지가 되는 니구유타는 마갈국의 바라문 집안에서 태어나서 전생의 복과 덕으로 인하여 큰 부자가 되었다. 재물이 나라 안에서 국왕 다음일 정도였다.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없었으나 그에게는 자식이 없었다. 그는 아이를 갖기 위해 집 근처의 수신(樹神)에게 제물을 올리며 기원했다. 하지만 여러 해가 되었어도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그는 크게 화를 내며 말했다.

“만약 7일 안으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면 이 나무를 당장 베어서 불살라 버리고 말리라.”

이 말을 들은 수신은 두려운 마음에 식의천왕(息意天王)에게 올라가서 고했다. 천왕은 이내 수신을 데리고 가서 천제석에게 말했다. 제석은 이내 천안으로 육계 안을 자세히 살펴보았지만 아직은 그의 아들이 될 만한 사람을 찾을 수가 없었다. 제석과 천왕이 다시 두루 살펴보다가 한 범천이 막 수명이 다하려는 것을 보고 그에게 말했다.

“네가 이제 엄부제에 가서 니구유타의 아들이 되어야겠다.”

그러자 범천이 그의 아들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제석은 이내 수신에게 일렀고, 수신은 돌아가서 니구유타에게 말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부인께서 7일 후에 아들을 임태하게 되실 것입니다.”

7일이 되자 수신의 딸대로 그의 부인은 임신을 하게 됐다. 열 달이 되어 아들을 낳았는데, 몸은 황금색이면서 광명이 있었다. 가섭이다. 관상쟁이가 말했다.

“이 아이의 전생의 복에는 커다란 위덕이 있습니다. 뜻하는 힘이 맑고 넓어서 세상의 일을 탐내지 않을 것이니, 만약 출가한다면 반드시 성인의 도에 오를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부모는 크게 근심하기 시작했다. 부모는 아들이 출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장거리를 들려줬다. 가섭은 그 말을 듣고 여러 번 부모에게 말했다.

“저는 출가에 뜻을 두었습니다. 아내는 필요 없습니다.”

부모가 그 뜻을 받아주지 않자 가섭은 다시 간청했다.

“만약 정 그러시다면 변상한 여인은 필요 없고, 자급색의 여인을 얻어주시십시오. 용모가 단정하여 견줄 데 없을 정도라면 제가 혼인하겠습니다.”

가섭은 부모가 도저히 이 일을 이루어낼 수 없게 하려고 꾀를 내었다. 하지만 부모는 바로 나라 안에 방을 붙여 신부를 찾았다. 그를 돕는 바라문들은 많은 여인들을 보기 위해 금으로 신녀(神女)를 만들고 온 나라를 다니며 금속에 예배하면 후에 좋은 남편을 얻게 되고, 몸은 황금색이 되고 얼굴 모습은 예배하며 지혜가 생기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소문을 냈다. 그러자 마을 지날 때마다 여인들 모두 나와 금신에게 예배하고 공양했다. 그러나 몸이 금색이며, 단정하고 예쁜 한 여인만이 나가

예배하지 않았으므로, 주위의 여인들이 말했다.

“그 금신을 뵈게 되면 원하는 대로 모두 이루어진다는데, 왜 나가 예배하지 않는 것이냐?”

그녀가 대답했다.

“나의 뜻은 한가하고 고요한 곳에 있습니다. 다른 원은 필요 없습니다.”

다른 여인들이 말했다.

“비록 소원은 없다 하더라도 잠시 함께 나가서 한 번 보는 것이 손해 될 것이 무엇이나?”

여인들이 서로 이끌어 마침내 함께 나가서 구경을 하게 되었다. 이 금녀의 빛깔이 금신에 비치는 지라 바라문은 돌아와서 가섭의 아버지에게 말했다. 가섭의 아버지는 중매쟁이를 앞세워 그 여인의 부모를 만나 그 간의 사정을 말했다. 그 여자의

“우리들은 모두 출가에 뜻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멀리서 부모에게 하직 인사를 올리고 함께 출가하여 산으로 들어가 수행하기에 이르렀다. 가섭은 곧 아내를 떠나 다른 숲에 가서 살았다. 그때에 어떤 바라문이 5백 명의 제자를 거느리고 역시 같은 산에 살고 있었는데, 가섭의 아내는 곧 바라문 문하에 들어가 수행하게 됐다.

가섭은 뒤에 부처님을 만나 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어느 날, 가섭은 아내가 아직도 범자들 곁에 있다는 것을 알고는 곧 아내를 데리고 부처님께로 갔다. 부처님께서 그녀에게 법을 설하시자 그녀 역시 법을 듣고 아라한이 되었다.

그녀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불법을 전하다



삼화 · 강병호

부모도 가섭의 이름을 들었던지라, 그 뜻을 받아 들었다. 그 여인은 근심스러웠지만, 부모가 이르는 일이라 마지못해 가섭에게 시집을 갔다. 두 사람이 서로 혼인을 했으니 뜻이 각자 단단하고 결연했다. 비록 부부가 되었다고는 하나 이성의 마음이 조금도 없었기에 함께 둘은 서약을 맺었다.

“나와 당신은 각기 다른 침대를 씁시다. 절대 서로 몸을 맞닿지 않기로 합시다.”

그러하여 부부는 각각 다른 침대에서 따로 자게 되었다. 얼마 후에 그의 부모가 그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아버지는 바로 사람을 시켜 침대 하나를 내다 버렸다. 부부에게는 침대가 오직 하나밖에 없었기에 그 아내는 다시 남편과 약속을 했다.

“제가 만약 잠을 자고 있거든 당신은 산책을 하십시오.”

여러 날이 지나고 가섭 부부는 서로 의논했다.

마침 바사니왕의 큰 모임을 지나게 되었다. 비구니들은 왕궁 안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서 부인들을 교화하여 모두가 하루의 재계(一日齋)를 지니게 하였다. 날이 머물러 왕이 궁중으로 돌아왔는데도 왕의 부인들 모두가 재계를 지킨다고 하면서 오려고 하는 이가 없었다. 왕은 크게 노하여 하인에게 물었다. “누가 나의 부인들에게 재계를 하도록 시켰느냐?”

하인이 가섭의 부인이라고 말하자 왕은 이내 그녀를 불러 90일 동안 부인들을 대신하여 수청을 듣게 했다. 이것은 모두가 바로 옛날의 인연이며 서원으로 지어졌던 바였기 때문에 비록 아라한이 되었다 하더라도 면할 수가 없는 일이었던 것이다. (《잡비유경》 제4권에 나온다.)

동국대역경원 발행 <경률(이성)에서 발행 재구성 구성=박재원 기자 wanhollo@hyunbul.com

이대원성 보살의  
바라밀 일기 ⑩



## 타종교 가족과 맺은 불교인연

새 인연

내가 40대 초반이었을 때 이야기다. 나는 그 당시에 어디를 가든 항상 작살차를 우러 보은병에 담아 들고 다녔다. 그날도 차를 준비 해 갔다. 함께 공부하는 사람들과 나눴다. 그 중 30대의 남자 한 분이 있었는데 그날 나의 차로 인해 인연이 시작 되었다. 나는 그를 '마 선생'이라고 불렀다. 그는 내가 준비해간 차의 맛이 마음에 들었던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차를 구해 우러 보았지만 그 날의 차 맛과 같은 차를 찾지 못했다고 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나를 찾아와서 차를 구해 달라고 했다. 나는 곧 녹차를 주문했고, 며칠 후에 마 선생에게 차를 갖다 주러 갔다. 그 당시 나는 해마다 초파일이면 부부동반으로 회원들과 해인사에 가서 참배하고 지족암 일타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기념 촬영도 하고, 지널 때였다.

나는 마 선생에게 마친 초파일이 되어오니 함께 가해인사에 가자고 했다. 그런데 그는 “우리 집은 모두가 교회에 나간다.”고 하며 갈 수 없다고 했다. 나는 “왜 놀러갈 때는 절에 가면서 부처님오신날이라서 절에 가자고 하면 기쁨을 하고 못 간다는 건가요? 종교가 달라도 기념이 되는 날이면 서로가

### 새 인연은 '새로운 나' 만드는 일 만나고 보내고 하는 것이 '삶'

축하해주어야 참 종교인이지, 내 것만 좋고 남의 것은 무시하면 종교인의 자세가 아니지요. 부처님 생신이면 교회에서 큰 등하나 만들어 달아줄 수 있어 야하고 또 크리스마스 날에는 우리 불자들이 큰 트리를 만들어 교회에 드릴 수 있어야 평화로운 종교인의 모습이 아닐까요?”라고 했지만 마 선생이 무릎을 탁 치면서 “정말 그렇군요. 나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못했는데, 오늘부터 마음을 달리 해야 겠습니다. 초파일에 가겠습니다.”고 했다. 나는 기쁜 마음에 “마 선생님을 믿고 두 자리 마련하겠습니다. 꼭 부부가 함께 오세요.”했다. 며칠 후 초파일 아침 많은 사람들이 우리 집 앞에서 버스를 타고 있을 때 멀리 마 선생님이 보였다. 너무 반가웠다. 해인사를 다녀와서 얼마 후에 마 선생 부부가 함께 우리 집에 놀러왔다.

마 선생은 절에 가는 동안 동행했던 사람들의 즐거웠던 시간들과 절에서 느낀 소회를 털어놓았다. 나의 권유로 절에 오기는 했지만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으로서 어색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 모두 법당에서 참배할 때 그는 법당에 들어오지 못하고 법당 주위를 서성거렸었다. 하지만 나는 그에게 권유하지 않았다. 함께 와 준 것만으로도 그로서는 큰마음을 낸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그는 법당에 들어가지 못하는 게 미안해서 혼자 마음속으로 말했다고 했다. “저도

마음은 법당 안에 있습니다.”

“그러셨어요? 마 선생 마음, 정말 감사합니다.” “교회에 가면 언제나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로 설교가 시작되는데, 스님이 범문하실 때는 어떻게 시작하시는지 귀를 세우고 있었는데 우리들 일상생활의 지혜와 가피를 말씀하시어서 가슴이 찡한 것이 기독교, 불교를 떠나 참 좋은 말씀을 듣고 있다는 생각이 참 잘 왔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 선생의 부인도 새로운 경험이었던지 내년에 다시 함께 하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정말로 두 부부가 함께 가게 되었다. 그 아내도 작년의 남편처럼 좋은 인상을 갖게 되어 기쁜 하루였다며 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며칠 후 스승의 날이 되었다. 마 선생 따님이 지금은 여의사가 되었고 두 아이의 엄마이지만 그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다. 그날은 선생님께서 반장엄마가 한 시간 수업을 해야 하는 날이어서 나를 데리러 왔었다. 내가 엄마대신 수업을 맡아 달라는 부탁이었다. 마 선생 딸이 반장이었던 것이다. 나는 너무 당황스럽지만 평소 스님들께 들었던 법문을 생각하며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을 찾아 해주었다. 의외로 반응이 좋았다. 그렇게 해서 마 선생 딸과도 인연을 맺었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나와 친하게 지내고 절에 다니고 했던 일로 인해 마 선생 내외가 독실한 기독교 신자인 어머니로부터 싫은 소리를 들은 모양이다. 그런데 한참 후에 들려오는 소리가 마 선생 어머니가 금강경을 보신다고 하고, 마 선생은 우리집 바깥양반과 이기영 박사 강의를 들으러 상주까지 다닌다고 하고, 마 선생 부인은 통도사 선다회 회원이 되었다는 것이다. 나는 마 선생 가족을 생각하며, 내가 이제는 더욱 함부로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 내가 그들을 나의 것으로 불러들였으니 함부로 살 수 없는 일인 것이다. 새로운 인연을 맺는다는 것은 새로운 '나'를 만드는 일인 것 같다.

손자국 불자국

비가 내리던 어느 날, 소파에 앉아 창밖의 비를 바라보다 베란타의 유리문을 보게 되었다. 너무 더러웠다. 걸레를 들고 유리를 닦기 시작했다. 유리를 닦다보니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닦아야 할 것들이 많았다.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려고 마음을 먹으니 눈에 들어왔다. 그 중에는 며칠 전 놀러왔다 돌아간 어린 손주의 손자국도 보였다. 양쪽은 손주의 손이 유리 위에 포개졌다. 물끄러미 손주의 손자국을 바라보다 이내 손주의 손자국을 닦아냈다. 손주는 어느 날 베란타 유리문에 또 손자국을 남기고 갈 것이다. 그리고 나는 또 손자국을 닦으며 손주 생각을 할 것이다. 창밖엔 봄이 왔다. 손주의 손자국처럼 인연이 지었던 불자국이다. 지우고 또 만나고 그렇게 사는 가 싶다. 부산 언꽃모임회장

**일반인과 수행자를 위한 행복 지침서**  
마음의 안락과 열반을 성취하는 실천수행

보시 · 지계 · 출리 · 지혜 · 정진  
인욕 · 진실 · 결의 · 자애 · 평온  
**바라밀!**

수행성취의 열 가지 조건, 삼바라밀  
**행복에 이르는 열 가지 습관**  
Sujin Boriharnwanaket 저 / 정명스님 역  
한국판 | 369쪽 | 13,800원  
\* 전국 서점과 인터넷에서 판매

**피로움의 소멸, 열반 증득을 위한 수행성취의 조건**

불교에서는 피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님바나(열반)라고 하는데, 열반을 증득하려면 필요조건을 갖춰야 한다. 이 조건이 바로 삼바라밀이다. 수행의 성취는 열심이란 한 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바른 조건을 만나야만 이뤄진다. 그래서 구도자는 그 조건이 무엇이고 나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를 안 다음에 하나하나 이 조건들을 충족시켜 나가야 한다. 태국의 명상수행자인 Sujin Boriharnwanaket는 니까야 가운데 소부(小部)의 소승(小乘) 및 불소행장(佛所行藏)과 그 주석서를 근거로 붓다의 수행법을 제시한다.

김천 성진사 www.jungmyeong.com 054-434-9090  
비밀과소통 출판 및 범공망(특별회원) 문의 02-2632-8739

**“얼굴”만 보면 압니다!**  
한번의 인연으로 미래를 알 수 있습니다!

전국 시·군·면 100회 강연!  
<현 불교TV 출연 중>

- 이곳저곳 가서 점을 봐도 신통치 않아 답답하신 분
- 이름이 나빠서 성공 못하신 분
-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구성주이신 분
- 건강이 나쁜신 분
- 조상천도재로 고민하시는 분
- 결혼문제로 고민이신 분
- 가정사 어려운점, 말 못하는 사연
- 취업이 잘되지 않으시는 분
- 승진, 이직을 원하시는 분
- 학업문제가 고민이신 분
- 삼재에 들어있는 분
- 이사, 부동산(매매) 잘 안풀리시는 분

이제 기도의 기적이 일어났다!

- 대한불교 조계종 백양사 출가
- 서울 중앙 송가대학원 졸업
- 현 대한불교 종단 총무원장
- 주요저서 : 기도의 비법, 불교적책박사, 바늘끝에도 답이 있다

찾아 오시는 길  
경기도 안성시 공광면  
한운리 산 171번지

백련사 전화 031)673-1087

DdM 카페 카페검색 · 치우천왕 힐링캠프

**초절전형 슈퍼에너지 전기 보일러**  
전국 사찰 300여곳 시공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절감

에너지 전문 컨설턴트 무료상담 대환영

**태양광 발전사업 최고의 안정성 · 수익성**

노후에 “연금이 따로 있나? 태양광이 연금이다!”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 사업은 개인에게 사업권을 부여하여 안정적 소득 창출과 향후 노후대책은 물론 지속적으로 수입을 12년 동안 보장하는 사업입니다.

▶ 50Kw 발전 기준시 년소득 약 3,000만원 (불자우대)

내일처럼 열심히 하겠습니까 慧峰 합장

직통 011-335-6389, 대표전화 1688-5687